세계문화유산
통도사 기념메달
마하몰
www.mahamall.co.kr
에서 만나세요

현대불교

구독 · 후원 상담
02-2004-8212
ARS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538호 HYUNBULNEWS.COM 2025년 7월 9일(음력 6월 15일) 수요일 / 불기 2569년



연꽃 사이 피어난 미소

연꽃은 진흙에서 자라지만 물들지 않고 청정하다. 7월 서울 조계사에 피어난 분홍 연꽃도 맑고 단정하다. 연꽃 사이 피어난 미소는 혼탁한 세상 속에서도 마음은 청정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 여름, 말없이 피어난 연꽃이 보여주는 풍경이다. **글=신중일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기독 선교기지 세계유산 등재 타당한가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6월 20일, 광주 등 지자체 8곳
'선교기지 등재 협의회' 구성해
선교사 사택, 학교 등 등재 추진

기독교 선교, 식민 팽창 첨병役
'문명화' 논리로 기존 종교 배제
'근대=기독교' 편향적 기억 유산화

전국 8개 지방자치단체가 최근 기독교 선교기지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했다. 하지만 선교기지가 특정 종교 전파를 목적으로 했다는 점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기준인 '보편적 가치'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다.

광주 남구, 대구 중구, 충북 청주시, 충남 공주시, 전북 전주시·김제시, 전남 목포시·순천시는 6월 20일 창립총회 및 출범식을 열고 '선교기지 세계유산 등재 지방정부협의회'를 공식 발족했다.

협의회는 선교사들이 기독교 전파를 위해 설립한 교회, 사택, 병원, 학교 등을 '기독교 선교 유산'으로 규정하고, 이를 세계유산에 등재함으로써 역사교육과 문화체험,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기독교계가 내세운 선교 유적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 근거는 국가유산청(당시 문화재청)이 발간한 '2021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 신규 발굴 연구보고서'에 있다.

국가유산청은 보고서에서 '근대 개신교 선교기지'가 "한국의 근대화 추진의 원동력이 된 근대식 교육, 의료 기술, 건축 등의 전래 과정을 잘 보여주는 문화유산"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하기 위해서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이하 OUV)'라는 10개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기독교계는 2번 기준 '인간의 중요한 교류'와 3번 기준 '문화·전통, 문명의 독보성'에 부합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세계사적으로 기독교 선교와 서구 제국주의의 [illegible] 는 분리된 것이 아니라 서로를 정당화하고 강화하는 전략적 파트너였다. 기독교는 식민주의에 도덕적 정당성을 부여했고 식민주의는 기독교 전파에 안전한 통로와 보호를 제공했다. 근대기 식민주의의 주요 논리는 '문명화(mission civilisatrice)'였고 '기독교 전파'는 비문명 지역을 구원하려는 '신성한 의무'로 포장돼 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실제 미국 문학평론가 에드워드 사이드는 저서 〈오리엔탈리즘〉에서 "서구가 동양을 바라보는 방식은 '지배의 전략'이자 '문명의 우월성 담론'이며, 기독교 선교는 오리엔탈리즘과 밀접하게 얽힌 문화 권력의 매개체로 기능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또한 비교종교학자인 데이비드 치데스터 케이프 타운 대학 명예교수 역시 〈제국의 종교: 제국주의와 비교종교〉에서 "종교는 단순한 신앙체계가 아니라, 제국주의 시대 서구가 비서구 사회를 재편하고 통제하기 위한 정치·문화 도구"였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병두 종교평화연구원장은 "한국 근현대사에서 기독교가 의료, 교육사업을 통해 사회의 일익을 담당했다는 것은 충분히 인정한다. 하지만 세계유산으로 '보편적 가치'를 충족했다고는 보기 어렵다"면서 "한국 근대화는 제국주의 식민 지배라는 과정을 거쳤고, 선교사들의 여러 인프라 확대 사업은 단순 자선행위가 아니라 복음전파를 위한 문명적 도구"라고 지적했다.

이어 "근대화의 주요 동력을 기독교 전래로 보는 시각도 문제"라며 "이는 19세기 서구 열강과 기독교의 '문명화' 논리를 그대로 답습한 것"이라고 우려했다.

황평우 문화유산정책연구소장은 "유네스코의 'OUV'에 선교기지가 부합되기는 어렵다. 비슷한 유형의 필리핀, 일본 기독교 세계유산은 현지화가 수 세기에 걸쳐 이뤄졌기 때문에 100년 남짓의 한국 선교기지와는 비교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 기독교의 교세 확장이 근대 선교를 통해 이뤄진 것이 아닌 점에도 문제가 제기된다. 광복 직후 한반도 기독교 인구는 1~2% 정도로 미미했지만 미군정과 이승만 정권이 기독교 편향 정책을 펼치면서 이후 기독교 인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이러한 정치·제도적 배경 없이 오늘날 선교기지가 '계몽과 근대화의 상징'이라는 이름으로 유산화되는 것은 당시의 실제 영향력을 뒤집는 과장된 서사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이병두 원장은 "기독교 선교기지가 '근현대 발전원동력 형성 공간'으로 간주되는 것은 당시의 사회문화적 영향력에 비해 과장된 해석"이라며 "선교기지가 '인류 보편 가치'를 가진 세계유산에 등재되기엔 그 내력이 너무 특정 종교의 목적과 편향에 갇혀 있다"고 비판했다.

선명상 대중화 본격화 국가자격증 도입 추진

조계종 미래본부, 7월 1일 사업계획 발표

20개 사찰 프로그램 운영
입문·심화 등 과정 개설

조계종(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국민 정신건강 증진과 선명상 문화 확산에 박차를 가하고자 일반 사찰에서 선명상을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조계종 미래본부(사무총장 성원 스님)는 7월 1일 서울 전법회관 3층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선명상 대중화 사업 계획을 밝혔다.

미래본부는 국민 마음 치유를 위해 본격적인 여름휴가가 시작되는 7월 28일부터 조계종 전국 사찰 및 기관 20여 곳에서 선명상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선명상 프로그램은 체험과 입문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교육을 이수한 담당 지도자 스님의 지도로 체험 프로그램은 1시간 과정과 1박 2일 과정, 입문 프로그램은 집중 2박 3일 과정과 4주 과정이 준비됐다. 미래본부는 해당 사찰과 기관에 프로그램 홍보 및 운영 매뉴얼을 제공하며 사찰의 요청이 있을 경우 선명상 전문 지도자도 파견할 방침이다.

성원 스님은 "그동안 개발해 온 선명상을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면서 "체계적인 선명상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저변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래본부는 본격적인 선명상 대중화를 위해 9월부터는 선명상 아카데미도 운영한다. 아카데미는 선명상 위원회가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입문(4주), 심화(6개월), 전문(1년), 지도자(2년) 과정으로 구성됐다. 개발이 거의 완성된 입문 과정은 올해 9월부터 실시되며 나머지 과정들도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조계종은 선명상 사업이 정착하면 과정 이수에 따라 수료증과 선명상 지도자 자격증도 발급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지도자 자격증은 국가공인이 될 수 있도록 제도 도입을 위한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성원 스님은 "조계종이 명상지도자에 대한 명확한 자격 기준과 교육과정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국가공인 지도자 자격증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명상 지도자'와 '명상 지도자'의 차이와 기존에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는 단체들이 반발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기존 단체를 배제하기보다는 자격증 제도를 보완하자는 것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은호 기자**

현대불교신문 하반기 개편

#문화면 확대

기존 1면으로 운영되던 문화면을 2면으로 확대·운영합니다. 대중문화와 문화유산, 불교학술, 해외불교까지 아우르는 지면이 될 예정입니다.

#새 연재-법인 스님의 문자 반야

조계종 교육부장과 참여연대 공동대표 등을 역임한 법인 스님(화순 불암사 주지)이 하반기부터 '문자 반야'를 시작합니다. 스님은 불교 사자성어와 용어의 의미를 불교인문학적으로 사유하는 글을 선보입니다.

#홈페이지·모바일 리뉴얼

현대불교신문사 PC홈페이지와 모바일이 리뉴얼 됩니다. 기사 노출도를 높이고 카테고리를 새롭게 정리해 불자들이 다양한 정보를 신속하게 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리뉴얼된 페이지는 7월 9일 공개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인증
승려연수과정

2025년 승려연수교육
현대인을 위한 생활 수행과 포교



▶ 생활수행과 현대적 포교방안
• 화엄세계 : 수행과 담선
• 생활 속의 마음공부 : 치유와 성장
• 현대적 생활 수행과 포교 방안
• 커뮤니케이션과 포교
• 대승기신론과 한마음

*지금 바로 신청해 주세요!
소중한 인연에 감사합니다.

▶ 연수 개요
• 연수인증 : 조계종승려연수과정 (30점)
• 기 간 : 2025년 7월 17일(목) ~ 19일(토) (2박 3일)
• 장 소 : 경주 황룡원 (경북 경주시 엑스포로 40)
• 강 사 진 : 승단 전문강사진 – 청동스님 (동국대 불교학 박사 수료) 등
재 가 교 수 진 – 이화행 교수 (동명대), 황수경 교수 (동국대) 등
• 교 육 비 : 20만원 (국민은행 292-01-0033-316 (재)한마음선원 한마음과학원)
• 인 원 : 40명 (선착순 마감)
• 신 청 : 031-470-3200/3201 (일, 월 휴무)
• 웹사이트: http://hansi.org

QR코드를 스캔 하시면
바로 신청 접수 가능합니다.

(재)한마음선원
한마음과학원